

## 8) 8월

팔월 보름은 한가위이다. 이 지역에서는 ‘가웃날’, ‘가위’, ‘가우’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. 이는 추수감사의 성격을 갖는 명절이다. 본래 북부지역에서는 단오절이 성하고, 남부지역에서는 추석이 성하다. 전남지역은 특히 추석 명절을 1년 중 으뜸으로 칠 만큼 성대하게 보낸다. 오곡이 풍성하고 백과가 익어 가장 풍성한 시절 맞이를 할 수 있는 절일이다.

그 유래는 신라 때까지 소급할 수 있다. 『삼국사기』에 따르면 신라 3대 유리왕 때 가배가 있었다. 즉 7월 16일부터 궁정에서 두 패로 나누어진 여자들이 왕녀의 지시를 받으며 길쌈을 하여, 드디어 8월 15일이 되면 심사하여 진 쪽에서 이긴 쪽을 대접하도록 하였다고 한다. 가배가 가위로 변화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예로부터 추석절을 지내왔음을 알 수 있다. 특히 신곡을 거두어 이로써 조상께 친신하고, 여러 가택신에게도 이즈음에 신곡 헌례를 하는 것 등은 추수와 관련하여 그해부터 지켜져 내려온 연중행사임을 알 수 있다.